



화가·윤석남 1997

## 빛의 파종 / 윤석남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내게로 오는 여자들, 여자들 속의 한 여자의 시선이다. 윤석남은 그 여자들 속의 한 여자의 시선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다. 한 여자를 만나러 오는 999개의 목조상 속의 여자들의 시선, 그 시선 속에 깊이 감추어진 존재를 이 세상 속으로 드러내 놓았다. <나는 존재한다, 이 세상 속에서>라고 말할 수 있게 탈자연 속에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빛의 파종>이라고 명명했다.

—\*시인·김상미

• 1939년 만주 출생 • 1984년 프렛아트 인스티튜트 그래픽센터 수학 • 개인전 / 1997 조선일보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 1996 가마쿠라화랑(동경) • 1993 금호미술관 • 1982 미술회관 • 단체전 / 1997 성곡미술관 • 1997 <VERSUS III>(베란, 토리노, 이탈리아) • 1996 갤러리 사비나 • 1995 서울미술관 • 1994 대전 엑스포 환경관 • 1993 퀸즈 미술관(뉴욕) 외 다수 • 수상 여성발전 유공 포상 국무총리상(1997), 제8회 이종섭 미술상(1996)

## 시인과 화가의 만남

시인·김상미 / 화가·윤석남(표지작가)

## 끝나지 않는 역사—빛의 파종

김 상 미

(시인)



시인 김상미

1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내게로 오는 여자들, 여자들 속의 한 여자의 시선이다. 윤석남은 그 여자들 속의 한 여자의 시선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다. 한 여자를 만나러 오는 999개의 목조상 속의 여자들의 시선, 그 시선 속에 깊이 감추어진 존재를 이 세상 속으로 드러내 놓았다. <나는 존재한다, 이 세상 속에서>라고 말할 수 있게 탈자연 속에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빛의 파종>이라고 명명했다.

빛 없이 스스로 빛으로 존재하려는 듯, 아니 오히려 모든 빛을 거부함으로써 힘(실체)을 드러내보이려는 듯한 999명의 여자들.

윤석남은 그 여자들의 자아를 살아 있는 육체로서기보다 하나의 이

미지로서 한 곳에 세워 놓아, 자신에게조차 타자인 여성성을 보편적 담론으로 풀어놓고자 했다.

전시실의 2/3를 채우고 있는 처연하고 그로테스크한 999개의 목조상 앞에 서면 혁, 하고 숨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실실실 웃음이 배어나온다. 아마도 작품의 분위기가 주는 기이한 생명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회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자유로움처럼.

그럼에도 999개의 목조상엔 장소가 부재한다.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마치 어딘가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떼내어온 듯 무게감도 실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그 어느 곳도 아닌 곳에 서서, 자신의 뒷쪽에 남겨 놓고 영영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장소로 끌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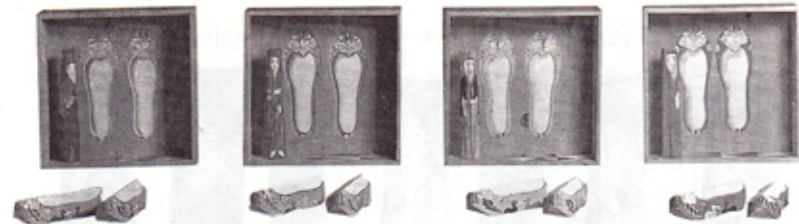
윤석남이 노린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프리다 칼로가 집요하게 파헤쳐온 내면의 성찰 속에 잠재해 있는 욕망(=생명력), 그것을 저 무심한 듯 보이는 여자들의 시선 속에 하나하나 새겨놓은 것은 아닐까?

## 2

<12결례의 꽃신>들이 놓인 자리에도 <장소>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관처럼 꽉 막혀 있는 꽃신들.

관념적 상상의 세계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벗어 놓은 12결례의 꽃신들. 꽃신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화사한 비장미를 내뿜고 있다.

「일기 — 1」의 경우에도 윤석남은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이중으로 드러내기 위해 색채나 분위기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결핍된 곳에 아직도 남아 있는 존재의 흔적을 보여주려 한다.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미지가 주는 주장이 이미지의 진실보다 훨씬 강렬한 탓에 작품,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토록 날카롭고 섬세한 비장미에도 불구하고.



꽃신, 나무 위에 아크릴, 설치, 1997

## 3

오히려 우리는 윤석남의 999개의 목조상에서 더 많은 걸 얻는다. 999개의 그 목조상들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아주 내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같이 느끼게 만들어준다. 999명의 여자들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춤으로, 혹은 다각도의 시선으로, 무수한 움직임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관통해 나갈 때마다 뚝, 하고 우리 자신 속의 내밀성이 부서지거나 균열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남이 자신의 작업에 붙인 「빛의 파종」이란 제목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윤석남은 목조상의 여자들의 육체를 모호하게 만들으로써 존재(시선을 통해)를 부각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존재의 순수성을 찾아 나서게 한다. 999명의 여자들 속에 감추어진 남자의 모습을 지워 없게 만든다. 그게 999명의 여자를 제외한 한 여자, 나(그녀)의 임무인 것이다. <나>라는 통치권자가 이 999명의 여자 속에 부재하는 남자를 지배하며 그들을 이 세상 속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곳이 이 999개의 목조상의 장소인 것이며, 윤석남이 서 있는 장소인 것이다.

## 4

그렇게 이미지 속에, 자신을 규정하였던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천불천탑을 쌓듯, 목조상 하나하나에 새겨 놓은 자신의 눈, 눈빛, 눈동자…… 그러나 그것들 앞에서 우리들의 유순한 수동적 상상



999의 부분, 나무 위에 이크림, 1997

력은 그 영원한 여성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 그 어쩔 수 없는 모성과 생명력 앞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 익명의 한 여자의 내면일 뿐이다. 여기저기에 못박힌 채 장소도 없이 표류하다 추락하는 여자들의 역사. 참을 수 없이 연약해져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여자들의 모습일 뿐이다.

그렇다. 윤석남이 표현하고자 한 것도 그 익명의 여성성인지도 모른다. 비인칭의 존재. 이중으로 감추어지고 겹쳐진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이미지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작품 속으로 함께 공모해 들어가야 한다. 그 이미지를 따라 그 이미지 속으로 강렬하게 이끌려 들어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윤석남의 <우주>에 온몸을 내맡겨야 한다.

5

999개의 목조상은 우리들과 닮은꼴이다. 우리들의 하나하나 모습을 닮았다. 또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것과 닮았고, 또 다른 어떤 것

과 닮았다. 우리는 그렇게 닮은꼴 사이를 거쳐 원래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다. 윤석남은 여자들을 통해 그 도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빛은 그 자궁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적신다.

어느 누가 그것보다 더 멀리로 갈 수 있는가? ■